

내가 왜 떴게?



평양냉면 먹는 아이린.

김정은-아이린 기념사진 화제

아이린: 걸그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기념사진이 화제다. 레드벨벳은 평양공연에서 '빨간 맛'과 '베드보이'를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조용필, 최진희, 이선희, 윤도현 등 많은 가수들이 평양에 갔지만 김정은은 위원장이 언급한 유일한 가수는 레드벨벳이었다. "일정을 조절해 오늘 왔다"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레드벨벳 공연 중 박수를 치며 관심있게 관람했다.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고독할까

고독지수: 대한민국 고독지수가 100점 중 78점 이란다. 원인으로는 개인주의의 심화(62.1%)가 가장 높단다. 고독감이 발생하는 문제로는 우울증, 자살, 고독사, 일 중독, 악성댓글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고독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더 고독해지는 기분이다. 외로움을 벗어날 것이나, 외로움에 익숙해질 것이나. 혼밥 먹으며 고민해보자.

'비니루봉다리' 이젠 버리셔도 됩니다

재활용: 비닐 NO! 페트병 NO!였던 재활용 대란이 일단락 됐다는 기쁜 소식이다. 정부가 재활용업계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비닐, 페트병을 평소처럼 분리 배출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을 종량제 병으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의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했다. 분리배출 대상 품목은 법이 정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앞으로 난관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비닐, 스티로폼, 페트병을 재활용 폐기할 수 있다니 다행이다. 오늘 밤 라면 두 봉지 끊어먹어도 되겠다.

우주환경미화원 되기 위한 공시생 등장?

우주쓰레기: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1호가 낭태평양에 떨어졌다. 우리 집 지붕 위로 떨어질까 우려했던 분들은 이제 시름 내려놓으시길. 텐궁 1호를 계기로 우주쓰레기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구 궤도에는 크고 작은 우주쓰레기가 무려 1억7000만개나 떠돌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 작은 크기지만 10cm가 넘는 것도 3만 개에 가깝단다. 이 우주쓰레기들은 작아도 속도와 위력은 총알처럼 강력하다. 우주쓰레기 담아 버릴 종량제 봉투는 언제쯤 나오려나. 장차 우주환경미화원이 각광받는 공무원 직업이 될지도.

김생민 미투 후폭풍 | 성추행 공식사과에도 비난 고조

“성실맨인줄 알았는데…”

‘김생민’이기에 더 들끓는 분노



데뷔 20여년 만에 전성기를 맞은 김생민이 과거 방송 스태프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기에 처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짠들이’ 반전인생에 고정 프로만 7개
10년전 성추행으로 이미지 곤두박질

방송인 김생민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기해자로 지목됐다. 10년 전 김생민이 출연하던 한 TV프로그램의 여성 스태프가 “노래방에서 회식 중 김생민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김생민이 이를 인정하면서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20여년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 지난해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전성기를 맞은 그는 1년도 안돼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김생민은 2일 제기된 ‘10년 전 방송사 스태프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

했다.

김생민이 이날 소속사 SM C&C를 통해 “10년 전 당시 출연중이었던 프로그램의 회식자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 당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고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에서야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 너무 많이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직접 만나 과거의 부끄럽고 부족했던 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상처 받았을 그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저와 함께 일해주시는 분들이 피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고 멋붙였다.

김생민은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즉각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대중에 전해진 충격파는 엄청나다. 이날 소속사가 보도자료에도 밝힌 것처럼 김생민은 1992년 KBS 특제 개그맨으로 데뷔하고 줄곧 “성실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로 활동했고, 지난해가 돼서야 처음으로 전성기를 맞았기에 그를 응원한 팬들의 배신감이 상당하다.

김생민의 갑작스러운 ‘사태’로 그가 몸담고 있는 방송프로그램도 초비상이다. 김생민이 현재 고정출연중인 프로그램은 7편이다. ‘김생민의 영수증 시즌2’를 포함해 KBS 2TV ‘연예가 중계’, MBC ‘출발 비디오 여행’, ‘정지적 참견 시점’, SBS ‘동물농장’, 케이블채널 tvN ‘짠내투어’, MBN ‘오늘 살래요?’ 등이다. 새 프로그램 ‘호모 이코노미쿠스 시즌2’ 진행자로도 발탁된 상태다.

현재 해당 프로그램들은 김생민의 거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어느 프로그램도 2일 공식 입장문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김생민의 이름을 내세운 ‘김생민의 영수증’ 제작진은 매우 난처한 상황이다. 또 ‘연예가 중계’ ‘출발 비디오 여행’, ‘동물농장’은 20년 가까이 출연하고 있어 그의 존재감을 하루아침에 지우는 일도 쉽지 않다.

김생민은 지난해 말 언론 인터뷰에서 “시청자 입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각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커브 장착’ 류현진, 첫 판부터 웃을까

오늘의 핫매치

시즌 첫 경기 애리조나전 등판

야구만으로도 꽉 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진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메이저리거들의 소식으로 기본 좋게 하루를 맞이해 저녁엔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보며 고단한 하루를 마치는 분들 많으시죠?

3일(한국시간)의 시작은 부상을 완벽히 털어낸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1·LA 다저스)이 책임집니다. 오전 10시 40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페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디아이아문드백스와의 원정경기에 2018시즌 처음으로 선발 등판합니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을 마치면 프리에이전트(F A) 자격을 얻습니다. 이 역시 부활의 날개를 펼치는 류현진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까요?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DB 선수들이 1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확정지은 뒤 KGC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개막 이전 최하위권 전력이라는 평가를 깨고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DB는 이제 챔피언결정전 우승에 도전한다.

안양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DB의 유비무환…‘4강 PO’ 완승의 비결

프레스·KGC ‘2-3 지역방어’ 무력화
선수들은 개별훈련으로 집중력 향상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통합(정규리그·챔피언결정전) 우승에 도전하는 원주 DB가 안양 KGC와의 4강 플레이오프(PO·5전3승제)에서 3연승으로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에 올랐다. KGC가 울산 현대모비스와 6강 PO(5전3승제)를 4차전까지 치렀고, 이 과정에서 주축 센터 오세근(31)이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했지만 DB의 압승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6강 PO에서 KGC의 기세가 워낙 좋았다. 하지만 DB는 1차전만 대등한 싸움을 했을 뿐, 2·3차전을 여유 있게 마무리했다.

철저한 대비가 있어 4강 PO에서 우승을 거둘 수 있었다.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DB는 4강 PO에 직행해 6강 PO가 펼쳐지는 기간에 쉬면서 전력을 다졌다. 특히 정규리그에서 나타난 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대학 팀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감각을 유지하고, 훈련했던 전술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

이러한 노력들이 팀 경기력을 극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디온데 버튼(24)은 “상대가 지역방어를 들고 나올 것을 대비해 이를 깨트리는 훈련을 정말 많이 했다. 팀 패턴 플레이도 준비했다. 내가 개인적으로 파고들어 KGC의 지역방어를 무너뜨리기도 했다. 훈련의 효과를 봤다”고 귀띔했다.

DB는 정규리그 6리운드에 상대의 지역방어에 고전한 경기가 많았다. DB를 만난 팀들은 버튼에게 외곽슛을 허용하더라도 개인돌파를 최대한 봉쇄해 득점력을 떨어지게 만들겠다는 작전으로 지역방어를 기동했다. PO에서도 상대가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본 이상범(49) 감독은 버튼의 위치를 조정하고, 스크린 등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으로 KGC의 2-3 지역방어를 무력화시켰다.

그 뿐이 아니다. 상대팀이 올코트 프레스로 나올 것으로 대비해 볼을 공격 코트로 운반하는 작업도 패턴화 했다. 가드 1~2명에 의존하지 않았다. 4강 PO 1차전에서는 KGC의 강압 수비에 2~3차례 가로채기를 허용해 실패한 듯 보였다. 패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수가 긴장해 실수를 범했다. 그러나 긴장이 풀리기 시작한 2차전부터는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았다. 빙복된 훈련의 효과였다.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많은 준비를 했다. 두 경기(27)는 버튼과 1대1 훈련했다. 두경민은 KGC 외국인 가드 큐제이 피터슨(24)을 상대할 준비를 위해 버튼에게 1대1을 요청했다. 두경민은 “실제로 많은 덕을 봤다”고 웃었다. 서민수(25), 이우정(23), 김영훈(26) 등은 4강 PO에서 때 경기 코트에 일찍 나와 김성철(42) 코치와 개인훈련하며 감각 끌어올리기에 애썼다. 이들은 실제 경기에서도 벤치의 기대에 부응하며 팀의 챔프전 진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탰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